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11월 12일 (제92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Byung Woo Kyeom

너 혼자 해야 해

2006년 인도 뉴델리 집회에서 나는 통역을 담당한 임무수행 목사에게 “정신 바짝 차려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도와줄 수도 없다.”라며 강한 정신무장을 당부했었다.

그렇다. 링 위에 오른 권투선수는 누구도 도울 수 없다. 건곤일척의 승부를 오직 본인 스스로의 책임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코치가 가르치고 기술을 익혀줄 수는 있지만 같이 싸워주거나 대신 싸워줄 수 없다. 선생님이 지식을 함양시켜주지만, 시험은 학생 혼자 치러야 하는 것처럼.

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가르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체의 구원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믿음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믿음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대신해 줄 수 없다. 각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자기가 해야 한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마24:40)의 말씀이 이를 증명한다. 상도 각 개체가 행한 대로 받는다. 나는 하늘의 상에 대해, 면류관과 왕권에 대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롬2:6~7)라고 가르칠 뿐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어느 전도사의 꿈 이야기가 생각난다. 내가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 심판을 하는데 사랑하던 장로가 와도 건지지 못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더라. 당연하다. 심판대 앞에서는 동정이나 인정이 통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장로라고 해도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믿음이었다면 어쩔 수 없다.

선생된 자가 언제 제일 기쁠까. 혼자 잘 해낼 때다. 그 때 가르친 보람을 느끼고 노고를 잊는다. 부디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만 믿음생활 잘 해주길 오늘도 기도한다.

신장개업했다고 장사 잘 되는 것 아니다

‘신장개업했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 아니다.’

지난 11월 7일 동해예수중심교회 이전 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담임 김기연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간판을 바꿨다고, 이사했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란다. 네 마음을 바꿔야 해. 네가 변해야 해. 예전 그대로 음식 맛이 없고, 서비스가 엉망이면 신장개업을 해도 그 때 뿐, 아무런 소용이 없단다. ‘왜 장사가 안 될까, 왜 교회가 안 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여 원인을 분석해야 한단다. 요즘 실패학이란 것이 뜨고 있는데, 그것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성공을 일구는 것이다. 실패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 거다. 김 목사도 ‘나의 문제는 무엇

가져야 한다. 첫 손님은 광고판인 게야. 그래서 첫 손님을 예수님 대하듯 해야 한다. 그가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진실해, 우리 목사님은 성도의 이름을 불러 가며 기도하셔. 우리 목사님은 모든 것에 흠이 없어.’ 이런 소문을 내면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는 거거든.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50년 전 아이들이 코를 흘리고 다니면 뉘아주고 씻겨주었더니 그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목사님 자랑을 해서 교회의 기초를 쌓았다고 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대충’이란다. 대충 해놓고 성공을 기대하면 안 되지. 명작은 열정의 산물이고, 최선을 다할 때 성공의 길이 열리는 거야. 나는 평생에 대충이 없단다. 한 명이 있든, 열 명이

야 한다. 그러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되지. 그 빛을 따라 성도들이 몰려든단다.

오늘 정동진에 있는 음식점에 갔는데, 어찌나 주인이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은지 ‘내가 가까이 살면 매일 오겠소.’라고 내가 주인에게 말했다. 맛은 좋은데 서비스가 엉망인 음식점이라면 다시 갈지 말지 생각하지 않겠니? 항상 웃는 얼굴, 친절, 배려가 함께 한 교회라면 누가 밀어내도 가지 않겠니?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는 거란다. 성도를 타할 게 아니고, 환경을 타할 게 아니고 나를 타하고 나를 질책하면 성장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나도 처음 한 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할 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동해예수중심교회 이전예배 (2017. 11. 7)

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무엇이 부족했나’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어야 진짜 신장개업이 되는 거란다.

음식의 맛이 좋으면 거리불문, 시간불문, 장소불문이란단다. 네가 지금처럼 작은 성도 하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 일에 충성되면 어디서든 성공하게 되어있다(욥8:5). 성도들은 몰려오게 되어있다. 음식 맛은 고객이 제일 잘 아니까. 세계적인 골짜가 ‘내가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를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가 알고, 사를 연습하지 않으면 깎려리가 안다’고 한 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목회에 임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또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양에게 관심을

있든, 십만 명이 있든 나는 똑같이 설교한단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야. 나는 김 목사를 비롯한 여기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이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에 임하기를 바란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을 늘 의식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시139).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이 주의 종들은 산 위의 동네에 비유할 수 있지(마5:14). 다 보이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그래서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야. 겉과 속이 같아야 하고, 온유하여야 하며, 청결한 자가 되어

했다(마9:37~38).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일꾼이 모여들어 교회를 건실히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단다. 분명히 김 목사를 위해 예비된 일꾼들이 있으니 기도해라.”

목사님은 설교 후 통성기도를 시키고 안수하시며 성령세례를 주셨다. 흡사 초대 예루살렘교회를 보는 듯 했다.

동해예수중심교회가 오늘 시작할 때의 마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히3:14),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여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11월 16일은 대입수능시험일입니다

교단 내의 대입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엡6:1~9)



착각보다 큰 착각은 없다

효(孝)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효는 모든 도덕의 기본입니다.

효(孝)에 대한 성경적 풀이는 이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6:1).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효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른 것이요, 나쁜 것이요, 불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어버이날이나 명절, 혹은 생신에 용돈 좀 드리고 외식 한 번 시켜드리는 것으로 효도했다고 자위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사회에서 이 정도만 해도 효자지요. 그러나 진정한 효는 근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공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엡6:2)고 재차 말씀한 것입니다. 공경(恭敬)이란 섬길 공(恭), 정중할 경(敬)으로, 정중하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는 분의 말씀에 반발도 반대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젊은이에 비하면 지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잡자코 있어요.” 이런 놈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하며 부모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는 놈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부모님이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그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헤아려 듣는 것이 순종이요, 이런 순종이 효행의 첫 출발입니다. 옛말에도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 효자 집안에 충신 난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도 이삭이 들은 말만 하겠습니까? 이삭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해서 자신을 묶으려는 아버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사 이삭을 건져줬을 뿐 아니라 어디를 가나 백배나 더 좋은 것으로 주셔서 그의 생애를 순탄케 하였고, 리브가 같은 좋은 아내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열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5계명부터는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5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십계명 중 다른 계명은 다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섯 번째 계명만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경고인 반면 이 계명은 ‘하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즉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3)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것 했다고 잘 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주시니 말입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것이 왕이 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룻도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여 최고의 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을 접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리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잘 모셨더니 제자 중

가장 오래 살아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불효막급한 놈은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이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는 레아에서 난 야곱의 장남인데, 글썽 이놈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장남이지만 탁월치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손이 적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대상5:1). 또 불효자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있는데, 이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지요. 그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자입니다. 그

의 결국이 어땠는가 하면 요압에게 살해된 후 기도된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30:17). 그러나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교회에 안 다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장손이니 제사는 지내라’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왔던 것은 ‘주 안에서 순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제사 문제 등등 갈등이 있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감사하게도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좀 드리고 효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어쩌다 한 번 해외여행이라도 시켜드리면 세상 제일의 효자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착각보다 큰 착각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혹시 시대적 감각이 뒤떨어진 말씀을 하셔도 ‘예’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방법이야 어떻든 다 자식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부모가 자식에게 한 것의 1/10만 자식이 해도 효자소리 듣는다고 합니다. 어릴 적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해도 부모는 다 받아줬습니다. ‘오냐, 오냐’ 했습니다. 이치에 안 맞는 소리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이 늙으신 부모님께 할 차례입니다. ‘예, 아버지’, ‘그럼요, 어머니’ 하세요.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토 달지 말고 말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잠23:22)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청종(聽從)’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버이 듣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행복해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일거양득이 됩니다.

‘효자 집안에 충신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나라 일에도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은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느냐’며 효가 모든 것에 기본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만든 자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전자제품을 110V에 꽂으라고 했는데, 220V에 꽂으면 고장 나는 거 아시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으뜸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권세 있는 크리스천의 자세

신앙은 나를 위한 것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만큼 사건 사고도 많아지고 험악해지는 21세기다. 어린 시절, 동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다가 주인장의 기침 소리에 놀라 달아났다든지, ‘도둑아~’ 소리 질렀더니 도망가더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낭만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어떠한가? 자고 있는 식솔들을 깨워 칼로 위협하며 강도짓을 하거나 심지어는 살육도 마다하지 않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이제는 그냥 자지 않고 깨어있는 정도의 순진한 대처로는 안 되고, 완전무장을 하고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만큼 때가 악하다. 악한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발호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 하더라”(계12:12).

그냥 ‘주여~’ 하며 두려워 떨고 있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맞서 대적해야 한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6:10~17).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만이 마지막 때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라 하겠다. 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9:28~29). 곧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목사님께 배운 대로 하면 된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매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세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지속하면 된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게을러지고 나태해 지려는 나와 싸워 이기는 것만이 영적 생활을 승리로 이끌며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힘을 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Henry Han

:: To Be Succeeded ::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도 바울은 쫓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잊지 않고 쫓아가노라고 고백한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에게 왔다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 노를 발하며 발걸음을 돌렸다고 한다. 병을 고치겠다는 목적을 잊어버리니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몸종의 조언을 듣고 깨달아 요단강에 몸을 담그니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증거한다.

또한 부자 청년을 보라. 영생의 문제로 예수께 왔다가 재물의 문제 때문에 목적을 잊고 돌아섰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반면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을 고치겠다는 목적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자존심을 꺾고 예수의 자비를 구했더니 딸이 고침을 받았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은 한 많은 과부 역시 떨시와 천대를 개의치 않고 목적을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더니 목적을 이루었다고 한다.

신앙생활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자. 이것을 늘 인식한다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고,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넓게 흩어진 빛은 힘이나 영향력이 없다. 그러나 돋보기를 이용해 빛의 초점을 맞추면 종이를 태워 불을 붙일 수 있다. 목적이 분명할 때 이렇듯 동력을 끌어내게 된다.

신앙과 삶의 목적을 잊지 말고 힘 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란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가장 지혜로운 삶

배움의 끝은 실천

우리 삶과 신앙생활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지렛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전부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주 안에서 크고 작게 헌신 충성하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불러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분이기 때문이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했다면 두려워 골리앗 앞에 서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때때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며, 때로는 삶과 신앙이 기쁘지가 않고 버겁기까지 하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면, 설명 한다고 할지라도 울리는 행과리요 빈껍데기가 될 뿐이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가 남들은 접근조차 힘들어하는 나병

환자의 환부 고름을 입으로 빨아낸 것이 목사님 개인의 선한 인격만으로 한 것이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손 목사님은 단지 전기에 나오는 위인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한공급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 흘러나온 것이었기에, 그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들이 크게 감화 감동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로마 시민권자로 당대 최고의 학식을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도,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임을 진실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가 겸손히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그분께 드릴 것은 감사뿐이며,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 뿐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반드시 성공이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냈던 필기시험 문제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하시고 설명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답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 목숨을 우선 구해야 한다. 둘째는 의사를 태움으로써 은혜를 갚을 좋은 기회이다. 셋째는 의사에게 보답하는 것은 나중에도 가능한데 반해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이상형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상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회사에 응시했던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이 써낸 답은 이렇다. ‘의사 선생님께 제 차의 열쇠를 드리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드리도록. 그리고 난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

릴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이기에 절대 외롭지 않을 것이고 그 차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또한 할머니를 통해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열려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1을 뚫고 합격한 사람일지라도 생각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기쁨과 결과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강단으로 올라가더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 사모님 왈,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천사와 같은 목사님과 살려고...”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나는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 저 사람은 교회당만 오면 천사 같은데. 교회당을 나가기만 하면 보통 사람보다도 못했다고. 강단에서 증거 되는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에게도 칭송 듣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한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내 인생 가을 길에서

가을!

나~2대~ 언젠가 피할 수 없는 순간
살아온 세월 뒤돌아보며 좌우를 보겠지

황금들녘 메뚜기 뛰며 고추잠자리 춤추며 노래하니
해바라기도 마주보며 갈갈갈 웃어대고
호박꽃 활짝 웃는 얼굴로 나팔 불며 향수 뿌리누나
울긋불긋 감 사과 석류 모과 포도 배, 옷 갈아입고 파티 갈 준비 바쁘구나
메마른 콩, 팥, 따가운 햇살에 나도 가자고 터져 나오며 외치니
고개 숙인 수수 축하한다 바람에 박수치고
고구마 캐는 아낙네 웃음소리 즐겁기 그지없는 풍경
도토리 알밤 떨어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래도 다량쥐 춤추며 좋아라 뛰놀고
맑은 실개천 웅덩이 송사리 떼들 춤을 추누나
어미 소 달구지가득 싹고 농부와 미소진 얼굴 좋아라 침 흘리니
뒤따르는 송아지 울음소리 음매~ 음매~ 음매~ 풍요로운 가을들녘 노랫소리
푸른 하늘 기러기 떼 V자 줄걸며 얘기하며 여행길 찾아 미련 없이 떠나누나~

우리도 언젠가 저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낙엽 뿌려 주는 오색길 손잡고 아름답던 얘기하며
겨울 맞으려 부활의 꿈 안고 2대와 함께 가겠지
후회 없이 살았다 얘기하며~

朋友

심장병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모든 질환 가운데 가장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응급질환은 무엇일까? 답은 심장병이다.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지만 심장병은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병이다. 3분만 심장이 뛰지 않아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4분이 지나면 뇌사에 빠져 단 4분 만에 생사가 엇갈린다. 대부분의 돌연사를 심장병이 차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늘날 주된 심장병은 관상동맥질환이다. 관상동맥질환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긴다. 대부분 적게 움직이고 많이 먹는 현대인의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 쓰고 남은 음식물의 잉여 칼로리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니 하는 기름의 형태로 관상동맥에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혈관의 직경이 좁아지고 심장근육으로 유입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심장혈관에 쌓이는 기름

은 대단히 민감하게 혈류량을 줄인다. 혈류량은 혈관 직경의 네제곱에 비례한다. 예컨대 혈관에 기름 찌꺼기가 쌓여 혈관의 직경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혈류량은 절반이 아니라 1/2의 네제곱, 그러니까 16배나 줄어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혈관을 가능하면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관상동맥이 단순히 좁아진 정도면 협심증이지만 완전히 막히거나 내부에서 터지면 심장근육에 괴사가 일어나는 심근경색증이 발생한다. 어느 경우든 예방을 위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금연하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뱃살을 빼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운동은 조금씩 자주해야 한다. 한 달 내내 운동을 안 하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루 종일 등산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정적인 자세로 긴장하면서

용을 쓰는 것도 심장에 좋지 않다. 몸을 움직일 때보다 훨씬 많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장근육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아스피린은 분명 도움이 된다. 하루 한 알씩 소량의 아스피린 복용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심장병을 예방한다. 그러나 아스피린은 약이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의 처방 아래 복용하는 것이 좋다. 도움이 되는 식품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과 견과류, 혈액을 맑게 하는 해조류, 혈중 유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양파와 마늘, 항산화제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등도 심장에 좋은 식품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 Global Study ::

♣ 늙을수록 무엇이든 배우라
내가 알아야 자유가 있다

As you get older, find something to learn.
Then, you'll have freedom.
无论是什么,越老越要学习,
因为自己知道,才有自由。

♣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배우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Action of learning should be praised,
however ignorance is shameful.
不懂才羞愧,学习是得人称赞的事情。

♣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It is better late than never.
感觉已晚的时候是最快的时候。